

우리 영화의 세계화, 그 방향



박 규 채

〈 본회 이사·영화진흥공사 사장 〉

우리 영화의 세계화는 국제 수준의 영화를 제작하는 풍토를 조성시켜 국내시장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해외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러한 의도는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영화의 철저한 수출상품화로 이해되어 질 수 있으며, 문화적 측면으로는 영화를 통한 우리 문화의 해외 소개라는 관점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렇듯 영화가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선진국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들은 자국문화의 활성화와 대외적 이미지 부각을 위해 영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영화산업은 90년대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의 특징적인 양상으로는 영상 기술이 디지털화되고, 외국 직배사의 시장 잠식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여 대기업들이 미래형 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영상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거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 또한 산업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영화계는 제작, 배급, 흥행의 전 과정에 걸쳐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작 부분의 영세성은 심각한데 이는 흥행 부진, 재투자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왔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제작, 배급, 흥행의 수직적 통합을 모색하고 있으나 당장 가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없다.

그러나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한 자구책이 적극 개발되지 않는 한, 우리 영화 산업은 시장 규모의 한계 때문에 영세성을 탈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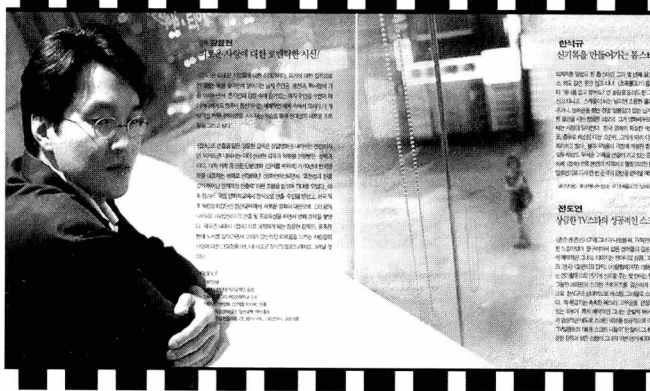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국제영화제에서의 저조한 수상 실적과 부진한 영화 수출은 내적인 부실로 기인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계의 문제점과 그 요인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는 작업이 선행되므로써 우리 영화의 해외 진출, 더 나아가 세계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물론 우리 영화의 세계화는 단순히 영상 작품의 수출 증대와 대

외 홍보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영화의 제작 환경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 제작자들의 창의성을 보다 높이고 제작 환경을 첨단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직배 영화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급변하는 영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영화는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한 때 2백편 넘던 국영화 제작



편수가 1990년대 들어 60여편에 머물 정도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의 영화제작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세계화 추세와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 영화 산업이 대응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영화 제작의 활성화와 질적인 향상, 둘째는 시설 현대화와 기술의 개발, 셋째는 인력 양성, 넷째 영화진흥 재원의 확보, 다섯째 해외 진출의 적극화 등이다.

여기에서 영화진흥공사가 우리 영화의 세계화를 위해 펼쳐 나갈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첫째, 21세기 영상 시대를 대비하는 서울 종합 촬영소 운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건립한 서울종합촬영소는 우리 영화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1991년에 기공하여 올해 11월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40만 24평의 대지위에 9만 1,815평의 조성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촬영용 스튜디오 3개 등, 녹음·편집스튜디오, 영상지원관, 야외 촬영장, 고정촬영세트(운당) 등이다.

앞으로 다가올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하여 건립된 종합 촬영소

는 촬영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적극 이용하여 관광시설화를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뉴미디어 기술 향상 및 영상 전문 인력 양성이다.

영화기자재를 첨단화하기 위해 디지털 녹음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며 영화제작기를 현대화하는 한편 기술진의 해외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영화 진흥 금고의 재원확충 및 운영 개선이다.

저리 용자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영화 진흥 금고도 현재 130억원에서 2000년까지 200억원 이상 조성하여 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것이다.

특히 영화 작가 중심의 좋은 영화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판권 담보’를 올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넷째, 한국 영화 금고의 재원확충 및 운영 개선이다.

현재 156명 배출한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2년제의 교육 기관으로 확대하며 멀티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보강하여 21세기의 영화

인 양성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다섯째, 영상 테마 공원 및 만화의 집 건립이다.

서울종합촬영소 내에 영상 테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까지 1단계로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3월까지 ‘한국영화 문화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현재 영상 소프트웨어 산업의 여러 분야들 중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 평가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만화의 집’을 종합 촬영소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영화제 참가와 시장개척을 위한 직접적 전략을 살펴보면, 국제영화제 참가를 적극 권장하며 영화제를 겨냥하는 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제영화제의 정보 파악이 필요함에 따라 재외공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영화제의 유력 인사와 적극적 교류를 유지하도록 하

며 이를 위해 국내 초청등 활발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화제, 수출, 홍보, 견본시 등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만을 전담으로 취급하는 전담 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 영화 산업 발전의 일대 도약의 조짐 현상은 해외 현지 영화 제작, 외국 영화사의 합작, 이를 바탕으로한 해외 배급망 구축, 그리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괄목할 만한 성과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세계시장 공략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영화는 국제영화제 출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마케팅 능력을 갖추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영화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 움직임은 좁은 국내 시장보다 전세계를 상대로 승부를 걸겠다는 영화인들의 도전적인 자세에서 비롯된다.

한국 영화 세계 시장으로 진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